

연구논문

청소년의 효 인식과 실천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n the Adolescents' Conception and Practice of Hyo

수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 교 수 최 영 희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Univ. of Suwon
Associate Professor: Choi, Young Hee

〈목 차〉

I. 서론	IV. 요약 및 논의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및 해석	부록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plore the adolescents' conception and practice of Hyo(filial piety). Fifteen teams of 500 adolescents were allowed to discuss about Hyo for two hours and the team leaders presented what they had discussed. The subjects were 330 elementary school students, 130 middle school students, and 40 high school students.

The findings from the discussion and presentation were as follows:

First, the adolescents' conceptions of Hyo were different in the stages of schools.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ought that they should do Hyo because they got lots of mercy from parents.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both thought that Hyo came from mutual(parent-children) understanding, but they showed somewhat different view about what disturbed the mutual understanding. Middle school students pointed the deficiency of parents' self-disclosure as a disturbing factor while high school students

pointed the deficiency of adolescents' understanding of their parents.

Second, the behavioral items that the subjects suggested as Hyo were analysed by the 12 Subvirtues of Adolescent's Hyo which was classified by Chung et al.(1996a). Adolescents could not propose any behavioral items for Thanks, Ancestor Worship, and Ecological Equilibrium, and some items for Advising Parents and Thrift. A lot of items were suggested for Moral Training, Supporting (Parents), Comforting (Parents), Respecting (Parents), Establishing Oneself, and Following Parents.

Key words: conception of Hyo, practice of Hyo, subvirtues of Hyo

I. 서론

외래 문화의 유입으로 청소년들이 혼란된 모습을 보이고 우리 문화가 위협당하는 위기 의식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 증가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전통적 윤리 도덕인 '효'를 교육하고 효 정신을 되살려야한다는 각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전통 가치를 되살리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보다 적극적으로 세계화에 동참하는 길일 것이다. 정옥분 외(1996a)는 세계화를 위해 효 가치관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진정한 세계화는 남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고 따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자존적으로 구축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 민족과 국가의 선진화는 바로 이 신념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p.2)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효 정신을 다시 부각시켜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일치된 동의를 하고 있지 못한데, 효 정신이 우리 사회의 윤리와 도덕을 바로 잡아준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여성과 젊은이들을 구속시키는 가부장적 유물이라고 보는 견해도 팽팽히 맞서고 있음에서이다. 효를 보는 견해가 이처럼 상반되기는 하나 어느 편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의 무의식에는 효 정신이 흐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유교의 효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인 고대사회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숭배를 중시하였는데 조상숭배는 효와 다른 것이 아니므로(최길성, 1993) 우리 민족의 깊은 곳에는 효 정신이 흐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계학(2000)도 우리의 효는 유교의 효와 그 뿌리는 달리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정신이라고 하였다. 그는 한민족의 이상적 인간상은 홍익인간하는 삶,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삶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며, 효는 삶다운 삶을 위해 사랑다운 사람이 실천해 나아가야 할 '도리'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의 깊은 곳에 효 정신이 흐르고 있으므로 효에 대해 평가하기 보다는 효의 의미를 다시 새롭게 하고 효 정신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 효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효의 정신과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효의 형식이 경직되어 있으며 가부장적인 규범에 얽매어있다는 데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효 문화를 우리의 것으로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현대사회에서의 효는 그 형식과 규범을 고집하기보다 그것에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수정하고 장점은 보완하며(김태길, 1987) 사회변화에 따라 효의 방법과 실천에 차이가 있는 것이므로 효를 규범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지향적인 것으로 보아 인간소외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고영복, 1983) 할 것이라고 보는 데 널리 동의하고 있다.

효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은 효의 근본 정신을 仁, 敬, 愛로 보거나(손인수, 1997) 仁, 忠, 中, 禮로 보거나(이경식, 1962) 혹은 효의 본질적 개념은 愛와 敬으로, 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윤리를 仁, 忠, 禮로 보는(김창련, 1985) 등 다양한 각도에서 효를 이해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에’임을 알 수 있다.

仁, 愛, 忠이 곧 사랑인데, 仁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손인수, 1997)이며, 사랑인 愛는 인간을 참으로 인간답게 하는 가장 본질적 요소이고 인간옹립력의 원천이며(이남구, 1979), 忠은 字形이 「中心」으로 마음 속에 허위와 가식이 없는 진실한 본심을 가리키는데 인간의 본심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仁이기에 忠은 仁의 발로(김창연, 1985)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를 존경하는 敬은 사랑의 출발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 본심이 가장 원초적이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부자관계, 즉 부모자녀관계이므로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은 인간에게 있어 자연발생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윤성범, 1977)이기 때문이다. 부모를 존중하는 敬이 이처럼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禮記」에 효의 세 단계(小孝, 中孝, 大孝) 중 부모의 인격을 존중하는 일을 大孝라고 하여 가장 위에 둔 것은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모든 사람의 인격 존중의 출발점이며 근본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禮는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다. 남을 사랑하려면 이기심과 사욕을 버려야 하며 사욕을 버리려면 사양하는 마음인 예절을 실천해야(손인수, 1997) 하는데 禮를 이행한다함은 인간 생활의 규범을 실천함을 말한다(禮履也, 所以事神致福也, 「論語, 說文」). 所以事神致福也에서 보듯이 원래 禮는 祭政이 일치하던 아득한 고대에 신에게 제사지내던 신성의식이었으나 祭政이 분리되면서 예도 신성의례에서 세속의례로 분리되어 가면서(이완재, 1983) 공자시대에는 貴賤上下의 신분예에 의해 예를 차등화하여 지키게 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을 띠었다(이경식, 1962). 그러나 현대의 평등사회에서, 예는 타인을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인해 인간과 인간사이에 있어서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간 사랑의 출발점인 부모자녀 간에 지켜야 할 규범이 禮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中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아서(不偏不倚) 지나침이나 모자람이 없음(不過及)을 의미하는 것으로 산술적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에 따른 행동의 조화 상태를 가리키는 것

이다. 이경식(1962)은 이러한 中이 孝와 마찬가지로 도덕의 기초이며 도덕의 총화이고 또한 中이 孝와 같이 인간의 자연적 감정과 유리될 수 없는 것이라 하여 효가 중에서 도출된다고 보았으나, 이러한 해석보다는 中은 넘치거나 모자라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사랑의 마음으로 禮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라면 中은 사랑하는 마음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효의 근본 정신을 간단히 살펴본 바, 효는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인간애의 출발점이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이므로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속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이기심과 사욕에서 벗어나 남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이며 가치 있는 일이고 도덕이라고 할 때, 내가 아닌 남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부모와 자식이고 그 둘간의 사랑과 존중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있게 된다고 본다. 이 세상에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만큼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것은 없으므로 그렇게 순수한 관계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사랑은 헛것이며 거짓일 것이다. 「不愛其親 而愛他人者 謂之悖德 不敬其親 而敬他人者 謂之悖禮」(孝經, 孝優劣章), 즉 자기 부모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나 공경 없이 남에게 행하는 사랑이나 공경은 패덕이며 패례이다. 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남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이치에 순종하는 것이고 제 부모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남을 사랑하고 공경한다면 이는 이치에 거슬리는 것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孝가 부모 자식간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모 자식간 사랑이 보편적 인간애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효가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과 존중을 본질로 하고 있어 효의 원래 의미는 ‘父慈子孝’로 부모는 자식을 자애롭게 대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양방향적이고 순환적 개념이나 부모의 자식 사랑은 강조되지 않고 자식의 부모 존중과 공경만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흐르는 물과 같이 자연스러워 그칠 줄 모르나 자식

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꺼져가는 불씨와 같아서 계속 부추켜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사회에서 평등의 가치관이 증시되면서 효를 현대적으로 조명하려는 시도를 한 연구들(손인수, 1997; 성규탁, 1996)은 시대에 적절한 효의 개념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간에 사랑과 예의가 오고 가는 것을 모두 강조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孝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서양의 개인적 가치관 유입으로 가족관계와 나아가 인간관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가치관 혼란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정신문화를 부활시키고자 하였으며 그 해답을 '효'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효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세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 하나는 효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들(금장태, 1982; 김규오, 1984; 김창련, 1985; 정근효, 1997)이다. 이들은 현대사회에서 효 윤리가 배척당하는 것은 효의 본질을 인식하지 못한 채 효의 형식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보아 효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효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연구들(김광원, 1997; 김우중, 1980; 문현호, 1996; 이병헌, 1998; 이규호, 1986; 최순호, 1996)이다. 전통적인 효 윤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과 효행에 대해 현재의 청소년들이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가를 조사함으로써 효 윤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하였다.

셋째는 효의 실천을 위한 교육 방법 모색에 관한 연구들(김미령, 2000; 안봉희, 1996; 이병국, 1998)이다. 아동과 청소년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이 효임을 인식하고 효를 교육하는 방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 것이며, 주로 학교 교육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학교에서 교과목 내 혹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의 세 방향의 연구에서 두 번째인 청소년의 효 인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동안의 연구들은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효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효의 내용과 효행을 제시하고 그것들에 대해 효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어떠한가

를 질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 효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가 매우 높았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낳고 길러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효라고 인식하고 있는 초등학생은 86.9%(최순호, 1996), 중학생은 93.7%(김우중, 1980), 고등학생은 89%(김진덕, 1987)이었다. 그리고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효라고 인식하는 초등학생은 64.3%(이병헌, 1998), 중학생은 59.6%(김우중, 1980), 고등학생은 44.6%(남태완, 1984)으로 다른 효의 덕목에 비해 낮은 편이었으나 청소년의 약 반 수 이상이 순종을 효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효 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효에 대한 인식과 함께 효를 실천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조사하면서 인식과 실천간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었다(김미경, 1991; 문현호, 1996; 정옥분 외, 1996). 제시된 항목들을 효라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는 높았으나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정도는 낮았다.

기존의 연구들이 이와 같이 효에 대한 문항들을 미리 제작하여 인식과 실천 정도를 조사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이 무엇을 효라고 인식하며 무엇을 해야 효를 실천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이미 제시된 효의 문항들은 성인인 연구자들이 효라고 인식되는 행동이나 태도들을 나열한 것이며 그 항목들은 바람직한 가치를 담고 있으므로 그것을 효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은 것은 연구방법 상의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상적인 가치를 지닌 행동들을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하여 인식과 실천간의 괴리가 뚜렷한 것은 효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위험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틀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들이 효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조사할 때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효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효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 항목들을 성인이 아닌 청소년 자신들의 생각과 언어로 표현된 자료들에서 청소년의 효에 대한 진정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교생에게 효에 관

해 자유토론 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크게 두 가지를 알고자 하였는데 첫째로, 효를 무엇이라고 보는지의 효 인식에 관한 것이며, 둘째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효행의 항목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다. 청소년의 효 인식과 실천 항목을 탐색하면서 동시에 초·중·고 교생의 학교급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000년 9월 3일 효 관련 단체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효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경기도 S시에 소재한 26개 초등학교에서 330명, 9개 중학교에서 130명, 그리고 7개 고등학교에서 40명의 보이스카우트 대원들 500명이 청소년 효 캠프에 참가하였으며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초등학생은 5, 6학년이며 중학생은 2학년, 고등학생은 1학년이었다.

2. 조사절차

330명의 초등학생은 9개 조로, 중학생 130명은 4개 조로, 고등학생 40명은 2개 조로 나누어 2000년 9월 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효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유토론하였다. 각 조마다 조장이 있으며 조장은 자유토론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자는 자유토론 시간에 각 조를 순회하며 참관하였다. 자유토론에서 기록한 내용을 다음 날인 9월 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조별로 발표하였다. 본 연구는 자유토론의 결과물로 제시한 발표물을 연구자료로 사용하였다. 발표물이 자칫 단순한 기록일 가능성이 있으며 청소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는, 본 연구자가 자유토론과 발표에 참여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으므로 발표물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으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3. 자료분석

학생들의 발표 자료를 크게 두 방향에서 정리하였다. 하나는 효에 대해 인식하는 바를 설명한 내용들을 학교급별로 구분하였으며, 두 번째는 효를 실천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제안한 항목들을 정옥분 외(1996a)가 제안한 자효(子孝)의 12덕목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정옥분 외는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 효의 덕목들을 정리하면서 선행연구들에서 분류하고 있는 하위 덕목들과 함께, 현대사회에서 효의 본질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제안하고 있지 않은 덕목인 '절제'와 '우주조화'를 추가하여 모두 12덕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실천항목들이 효의 덕목에 적절하게 분류되었는가를 보기 위해 정옥분 외의 연구에 참여하였던 연구자들 중 2명에게 분류의 적절성 검토를 의뢰하고 검토후의 의견을 조정하여 분류하였다.

정옥분 외(1996a)의 자효 12덕목과 그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효에 대한 인식

청소년들이 효를 무엇이라고 보는지에 관해 토론하고 발표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그 내용을 <표 1>에 제시하였다.

위의 <표 1>을 보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모든 청소년이 효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령에 따라 효를 인식하고 있는 방향에서 조금씩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초등학생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일하시므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보아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효라고 보고 있으며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면 아이들도 좋은 행동을 따라하여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효도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학생은 효의 정신과 사상은 변하지 않으나 표현 방법은 세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며 현대사회에서의 효는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 1〉 청소년들의 효에 대한 인식 내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가 가치있다. ·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힘들게 일하시므로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한다. ·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면 아이들도 배워서 따라하게 된다. 모범적이고 예절바른 행동을 배워서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부모님도 그 칭찬에 기뻐하신다. · 선물을 하는 것만이 효가 아니라 행동으로 기쁘게 해드리는 것도 효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겉으로만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도 잘 듣는다. · 효의 뿌리가 되는 정신과 사상은 변하지 않으나 표현 방법은 세대와 문화에 따라 다르다. · 부모님이나 웃어른 말씀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여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며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효도이다. · 부모님은 강한 척하고 자식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어 청소년은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다. ·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효가 아니라 자신의 소질을 개발하여 자기 만족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효이다. · 합리적인 심대의 효는 수직적 효가 아니라 어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청소년들이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식적인 효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효이다. ·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끄럽게도 아직 효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 단순히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 요즘 청소년들은 너무 자신들의 생각만 내세운다. 효를 위해서는 먼저 어른들의 모습과 생활을 이해해야 한다. ·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효이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효라고 하여, 효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생은 효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하여 효에 대해 혼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등, 중등 시절에 알고 있던 효를 실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나 그들이 효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음은 아니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효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그것을 실천하기는 어려웠음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효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말씀에 따르려는 수동적인 자세보다 어른들을 먼저 이해하자는 적극적인 자세를 제안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령 차이를 종합해 보면 초등학생은 어른이 모범을 보이면 아이가 따라한다는 단순한 생각이었으며, 중학생은 성인과 청소년이 서로를 이해하여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고등학생은 자신이 이해

받기를 원하는 것을 넘어서 성인들을 이해하자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었다.

2. 효의 실천 항목

초등, 중등, 고등학생들이 토론 후 발표한 효의 실천항목들을 정리하였다. 정옥분 외의 연구에서 子孝의 12덕목으로 제안한 틀을 사용하여 실천항목들을 분류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이를 보면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을 효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효에 관한 거의 모든 연구들에서 「감사」의 항목을 효의 항목으로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감사에 대한 실천 항목이 나오지 않은 것은 낳고 길러주심을 당연한 것으로 보아 새롭게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효의 하나임을 교육할 필요가

〈표 2〉 청소년들이 제안한 효의 실천 항목

자효 12 덕목	실 천 항 목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감사			
수신	· 우리몸을 건강하게 가꾸기	· 몸을 건강하게 하기 · 술, 담배, 약물 등으로 걱정 끼쳐드리지 않기* · 나쁜 길로 빠지지 않기*	
봉양	· 집안일 도와드리기 · 부모님의 심부름을 불평하지 않고 하기	· 집안일 도와드리기 · 부모님이 사키시는 일은 뉘든지 하기 · 할아버지, 할머니를 자주 찾아 뵙기* · 부모님 안마해 드리기* · 대화로 공감대 형성하기*	· 부모님 결혼기념일이 나 생신을 챙겨드리기
안락	· 형제 자매간에 우애지키기 · 항상 웃는얼굴 보여드리기 · 외출할 때 꼭 말씀드리고 나가 기	· 형제들과 우애있게 지내기 · 외출할 때 말씀드리고 나가기 · 오락을 지나치게 하여 걱정 끼쳐드리지 않기* · 부모님께 거짓말하지 않기*	
공경	·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하기	· 웃어른을 공경하기	· 웃어른을 공경하기
충간		· 웃어른의 잘못된 점을 말할수 있기*	
승지		· 대들지 않기* · 어른 말씀을 최대한 잘들어서 걱정기치지 않기* · 부모님 말씀을 새겨듣기*	
입신	· 공부를 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 학생으로서의 본분 지키기	· 부모가 원하시는 공부하기 ·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기 · 다양하게 자기개발하기*	
추모			
절제		· 돈 아껴쓰기*	
예의	· 부모님께 존대말 하기(존대말을 함으로써 공경하는 마음이 생김) · 아침인사하기('안녕히 다녀오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등)	· 부모님께 존대말 쓰기 · 웃어른에게 인사하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등 예의바르게 행동하기	
우주조화			

* 초등학생과 비교하여 중학생이 추가로 제시한 실천항목

있음을 알 수 있다.

돌아가신 조상께 제사를 지내거나 「추모」하는 것에 대한 항목도 거론되지 않았으며, 이는 아직 청소년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의 일을 생각하지 못했

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우주조화」는 환경을 보존하고 조상의 문화적 유산을 귀하게 여겨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으로 정옥분 외(1996a)의 연구에서 효의 발전적 덕목으로 제안된 것이며, 따라

서 일반적으로 효라는 인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신」은 孝經 편에 ‘몸을 닦고 행실을 삼가함은 선조에게 욕될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하여 수신이 효행의 도리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나쁜 행동을 삼가는 수신이 효의 실천 방법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편히 모시는 것을 大孝라고 하고 부모를 물리적, 물질적으로 보살피는 「봉양」은 小孝라고 하나(손인수, 1997) 소효 없는 대효는 있을 수 없으므로 효의 기본 덕목이 된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이 집안일을 돕거나 심부름 하기, 부모님 안마해 드리기를 물리적으로 봉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옥분 외의 연구에서는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고 부모에게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는 것을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봉양으로 보았으며, 본 연구에서도 부모와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효의 실천으로 보고 있었다. 한편 고등학생은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나 생신을 챙겨드리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효로 인식하고 있었다.

「안락」은 부모의 심신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으로 ‘부모를 봉양함에 있어 무엇보다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의 뜻을 거역하여 어기지 아니하며, 부드러운 말로 부모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고, 온화한 낮빛과 태도로 부모의 눈을 즐겁게 해드리며, 부모의 잠자리와 거처하시는 곳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정성을 다하여 봉양해야 한다’(士小節, 內篇)고 하여 물리적 봉양을 넘어서 부모의 심신을 안락하게 해드리는 것을 효행으로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님 마음을 편히 해드리기 위하여 외출할 때 꼭 말씀드리고 나가며 형제, 자매간에 우애있게 지내고 웃는 얼굴을 보이는 것을 들고 있으며, 오락을 지나치게 하거나 거짓말을 하여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효행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공경」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공경의 실천항목은 「예의」로 나타나고 있었다. 존대말을 쓰고, 인사를 잘하고, 웃어른께 자리를

양보하는 예의를 보임으로써 공경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였다.

참된 효는 무조건 부모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을 간곡하게 간하여 「충간」을 올리는 것이다. 小學 內篇의 明倫에 ‘부모가 잘못하시는 일이 있으면 아들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올바른 도리를 간해야 한다. 그래도 부모가 아들의 간함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여 공경하는 마음과 효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부모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때 다시 간해야 한다. 만일 부모가 자식의 간함을 기뻐하지 않더라도 부모가 죄를 지으시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자식이 간절히 되풀이하여 간해야 한다. 자식의 간함을 받으시고 부모가 화내시고 기뻐하지 않아 자식의 종아리를 쳐서 피가 흐르더라도 감히 부모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공경하는 마음과 효도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여 충간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중학생 집단에서 충간이 효의 한 방법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충간의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아 올바른 충간의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승지」는 ‘자식은 어버이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라’(童蒙先習, 父子有親篇)고 하여 순종을 강조하였으나 순종은 승지의 좁은 의미이며 순종은 선행연구들(이규호, 1986; 최순호, 1996)에서 효행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았다. 본 연구에서도 순종이라는 용어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대들지 않는 것을 효행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승지의 효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입신」은 ‘입신출세하고 성현의 도를 실천하여 후세에까지 그 이름을 날림으로써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효도의 완성이다’(小學, 內篇)라고 하여 자기 인격을 완성하는 것을 효도의 완성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켜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자기개발을 하는 것을 효행이라고 보고 있었으며, 공부를 하는 것은 부모가 원하시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고 입신의 효를 언급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부모의 기대와 더불어 자신의 생각이 더 크게 부각된다는 점

과, 과거에는 입신출세가 과거에 급제하여 권력이나 명예를 얻는 것이었다면 현대에는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입신의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정옥분 외, 1996a) 입신의 효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절제」는 ‘하늘의 도를 쓰고, 땅의 이로움으로 몸을 삼가고, 쓰는 것을 절도있게 하여 아버지를 봉양해야 한다’(孝經, 庶人章)고 하여 검소하게 사는 것을 효라고 보았다. 요즈음 청소년이 돈을 아껴쓰는 것이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으나 절제를 효의 실천 항목으로 제안한 것은 의미있다고 사료된다.

「예의」는 공경의 표현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인사하기, 존대말 쓰기, 자리 양보하기를 청소년들이 실천하는 효행으로 보고 있었다.

위의 <표 2>를 보면 중학생들은 초등학생들과 달리 부모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다거나 대들지 않기, 부모님께 거짓말 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을 새겨듣기 등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중학생들의 생활이 부모의 요구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효를 실천하기 위하여 부모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말씀을 최대한 잘 들어서 따르는 것이 효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무조건 따르는 것보다는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웃어른이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하는 것도 효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부모님 말씀을 따르는 것과 무조건 따라서는 안된다는 것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위의 <표 2>에서 보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효의 실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한데 비해 고등학생들은 실천 항목의 지적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효의 실천 항목들을 알지 못해서이기보다 구체적인 실천항목들을 제시하는 것을 실제적인 효의 실천으로 보는데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초·중등학생들이 제시한 항목들을 실제로 실천하기 어려웠음을 경험하고 효행이 실천항목들의 나열을 넘어선 것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초·중·고교생들이 ‘효’를 무엇이라고 보는가의 효 인식과 효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한다고 보는가의 효 실천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기성세대의 인식과 편견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청소년들이 인식하고 있는 효와 그 실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효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자유토론한 후 발표하도록 하였다. 500명의 초·중·고교 보이스카우트 대원들이 15개 조로 나누어 토론하고 발표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의 효 인식을 보면, 효는 가식적이거나 겉으로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요즈음의 효도란 물질로 봉양만하면 되는 줄 알고 있으나, 개나 말도 집에 두고 먹이지 않는가. 공경하는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구별하라’고 論語, 爲政篇에 언급된 바와 같이 효의 기본 바탕은 부모를 마음으로부터 공경하는 것이며, 지금의 청소년들도 이에 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에 기인하여 부모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견해가 초·중·고교의 학교급별로 조금씩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초등학생은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 힘들게 일하시므로 도와 드려야한다고 하여 은혜를 갚는다는 報恩에서 효도하는 마음을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부모로부터 받으므로 효로써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역으로 해석하면, 부모로부터 받지 못하면 효를 할 근거를 찾지 못한다는 위험을 낳을 수 있다. 실제로 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 효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김우중, 1981)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부모가 잘해야 자녀도 잘한다는 초등학생들의 이러한 생각은 다른 표현에서도 드러나는데,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면 아이들도 배워서 따라한다고 하여 효의 원천이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생들은 초등학생과 같은 보은의 효를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깊이

이해하면 효도하는 마음이 우리나라라고 하여 상호적인 관점을 보이고 있었다. 부모나 어른의 말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서로를 이해해야 한다고 보고, 부모가 자신들을 이해해줄기를 바라고 또 그들이 부모를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를 해야 하나 부모가 자녀에게 강한 척하고 자녀의 의견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하여, 청소년들이 부모-자녀간 대화의 걸림돌이 부모의 자기-개방 부족임을 언급하고 있었다. 그리고 합리적인 효는 어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청소년들이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보면, 중학생들은 효의 책임을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들은 효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하여 효에 대해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효를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부모가 아닌 자신들에게 돌리고 일면 자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 자신들의 생각만 내세우고 부모와 어른을 이해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며, 자신들이 이해 받으려하기보다 어른들을 이해해야 효를 할 수 있다는 보다 적극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효라고 보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상에서 요약한 바를 보면, 초등학생은 효도를 하거나 못하는 것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보나 중학생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보며 고등학생은 자녀 자신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은 효를 잘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효에 대한 혼란을 표현하고 있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스스로가 효를 잘 실천하지 못한다고 보고하고 있음은 여러 연구들(김광원, 1997; 김우중, 1980; 김진덕, 1987; 문현호, 1996; 이규호, 1986)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중·고교생이 초등학생보다 전통적인 효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는 있으나 실천은 잘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었다(문현호, 1996). 연령이 중

가할수록 효를 잘 실천하지 못한다고 여겨 갈등을 겪는 경향은 청소년층에만 해당되는 현상이 아니다. 노년은 중년보다, 중년은 성인 초기보다 효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하였으나 효를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한 정도는 노년이 중년보다, 중년이 성인 초기보다 낮게 나타나(정옥분 외, 1996b) 연령이 높을수록 효에 대한 갈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효를 실천하기 위해 행해야 하는 실천항목들을 정옥분 외(1996a)의 자효 12 덕목—감사, 수신, 봉양, 안락, 공경, 충간, 승지, 입신, 추모, 절제, 예의, 우주조화—에 준하여 분류한 바를 보면, 감사, 추모, 우주조화의 세 덕목의 실천항목이 제안되지 않았다.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제안되지 않았음은 감사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한 우리 문화에 기인하는 것일 것이다.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는 것에 대한 실천항목도 제안되지 않았는데 이는 청소년의 연령상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우주조화의 효를 실천하기 위한 것도 제안되지 않았다. 우주조화는 환경보존이라는 발전적 효의 덕목으로서 그것을 효로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낮았으며(정옥분 외, 1996b)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환경보존을 효의 실천으로 생각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효를 실천하기 위한 항목으로 적게 제안한 것이 충간과 절제였다. 충간과 절제 역시 아동과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의 경우에도 효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았던 점(정옥분 외, 1996b)으로 보아 충간과 절제는 효행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부모의 뜻에 따르는 승지는 다른 연구들에서는 순종이라는 용어로 조사하였으며 순종은 다른 효의 덕목에 비하여 효라고 인식하는 정도(최순호, 1996)와 실천정도(이규호, 1986; 문현호, 1996)가 낮았다. 본 연구에서도 부모님이나 어른들 말씀에 순종한다는 용어는 거론되지 않았으며 부모님 말씀을 새겨듣는 다른지 대들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어른들의 뜻을 따르는 덕목의 실천방법을 제안하고 있었다. 따라서 순종이라는 용어를 효와 결부시키는 것은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옳지 못한 일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며 자기를 개발하는 수신과 입신의 효는 다양하게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자신을 잘 관리하는 것이 효를 행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히 해 드리고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한 봉양과 안락의 항목들을 다양하게 제안하고 있었다. 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경을 하기 위한 방안들도 제안하였는데, 공경하기는 예의를 통해 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전통 유교에서 '공경할 줄 아는 마음은 禮'(김창련, 1985)라고 한 점을 현대사회의 청소년들도 자연스레 깨닫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들이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효에 대해 토론한 내용에서 현대사회에서 적용될 수 있는 효 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초등학교생들에게는 보은의 효를 효 교육의 바탕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안봉희(1996)가 효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부모가 모범을 보이는 것이며 부모의 은혜에 보답한다는 방향의 새로운 개념에서 효를 교육해야함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지지한다.

둘째,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에게는 보은의 효가 설득력을 잃게 되며, 효의 교육을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원래 효의 출발은 '父慈子孝'로서, 부모는 자녀를 자애롭게 대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부모가 잘해야 자식도 잘한다는 식으로 부모의 모범을 조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심지어 이계학(2000)은 효가 보은도 아니며 부모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효는 사람다운 사람의 당연한 도리라고 하여 상호적인 개념을 부정하였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애롭고 자녀는 효도하는 것을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도리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선행 조건이나 또는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효 교육은 자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각자의 도리를 배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부자자효의 효 개념은 새로운 것은 아니며 가정교육의 방향으로 제안되거나 또는 '내리사랑 효올리기 운동'(손인수, 1997)이라는 계몽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효는 자녀세대가 부모세대에게 바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효 인식을 탐색한 결과 효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것임을 여실히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효 교육은 부모와 자녀에게 함께 교육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정옥분 외(1996)가 子孝 12덕목 뿐 아니라 父慈 12 덕목을 고안하여 부모가 자애로움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셋째, 효의 기본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며 그 마음은 예의로 표현되므로 효는 예를 통해 실천될 수 있음을 알아 예절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공경이며(고경미, 1987), 본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이 효는 마음에서 우리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며 부모에게 예의 있게 함으로써 공경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여 예의, 예절을 효의 실천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은 효 교육에 예절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예는 외면보다 내면을 중시하는 것임은 論語, 八儒篇에 '예는 그 사치함보다는 차라리 검소할 것이요'라고 한데서도 알 수 있으나 그동안 형식에 치우친 예를 강조하여 예 교육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형식에 치우친 예가 아니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예를 교육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알고 있는 효 인식과 효 실천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자유토론과 발표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15개 조가 3시간 여에 걸쳐 토론하여 정리, 발표한 것을 본 연구의 자료로 함으로써 토론 과정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자료로 수집할 수 없었던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일 것이다. 다수의 연구자가 조마다 토론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여 그들의 모든 의견을 수집, 정리할 수 있었다면 더욱 생생한 자료가 되었으리라 여겨진다. 또다른 제한점은 학교급별로 참가 인원수가 달라 고등학교

생 수가 매우 적었으며, 그로 인해 활발한 토론이 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가 학생들이 보이스카우트라는 특수한 집단이었으므로 일반 학생들과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지닌 효 인식과 실천 방안을 청소년의 표현을 통해 조사함으로써 청소년의 자발적이고 순수한 효 인식과 실천방안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효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할 수 있었다는 점도 가외의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정신 문화로 대표되는 효가 사회 변화와 맥을 함께 하면서 생명을 얻어 세계화시대에 한국의 정신으로 수출되는 문화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효가 실생활과 유리되지 않을 수 있게 실용적인 효 연구가 활발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연구가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論語

童蒙先習

士小節

小學

孝經

고경미(1987). 대학생의 효행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영복(1983).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금장태(1982). 유교사상의 문제들. 서울: 여강출판사.

김광원(1997). 청소년들의 효관에 관한 실태 연구 -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규오(1984). 가족윤리의 근본으로서의 효도고찰 - 전통적 효도의 본질과 그 현대적 조명.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경(1991). 고교생의 효의식과 효행에 관한 연구 -서울시 인문계 고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미령(2000). 습관화를 통한 초등학교 효 교육에 관한 연구.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우중(1980). 중학생의 효관념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덕(1987). 중등학생들의 효에 대한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전북 이리시 중등학생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창련(1985). 효의식의 본질과 그 변천에 관한 연구. 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김태길(1987). 소설문학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서울: 일지사.

남태완(1984). 젊은이들의 효 관념의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문현호(1996). 초·중·고교생의 효행과 효의식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인기(1999). 효교육을 위한 중학생의 효의식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상규(2000). 효의 가치와 교육적 실천과제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손인수(1997). 한국인의 효도문화. 서울: 문음사.

성규탁(1996). 새 시대의 효. 서울: 문음사.

안봉희(1996). 효도 사상과 교육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성범(1977). 효.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윤사순(1990). 동양사상과 한국사상. 서울: 을유문화사.

이경식(1962). 효의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계학(2000). 효문화의 역사적 배경과 인류문화사적 의의. 효문화의 한국적 지평과 세계화 방안. 2002 수원 국제효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이규호(1986). 효에 대한 중·고등학생의 의식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이남구(1979). 효의 본질과 그 교육적 의의에 관한 일연구. 안동대논문집, 제1집.

이병국(1998). 효친의식 행상을 위한 지도방안.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현(1998). 초등학생의 효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완재(1983). 긍정적 측면에서 본 유교윤리. 한국인의 윤리관.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정근효(1997). 효개념의 탐색과 그 현대적 이해.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 김광웅 · 김동춘 · 유가효 · 윤종희 · 정현희 · 최경순 · 최영희(1996a). 세계화를 위한 ‘효’ 가치관 정립과 자녀양육 방향 모색. 연구보고서.
- _____ (1996b). 한국인의 효인식 및 실천 정도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387-403.
- 최길성(1993). 한국의 조상숭배. 서울: 예전사.
- 최순호(1996). 국민학교 학생의 효의식에 대한 조사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록] 청소년기 자녀의 자수에 관한 실천 지침

지침 제목	청소년기 자녀의 실천 지침
감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모두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 감사한 마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한다.
수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한 행동(약물복용, 본드흡입 등)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 꾸지람을 듣더라도 원망하지 않는다. ·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익힌다.
봉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에게 자신의 문제를 의논한다. ·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갖는다.
안 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시간과 행선지를 알려 부모에게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는다. ·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린다. ·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 · 부모를 나보다 우선으로 생각한다.
공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부모 뿐 아니라 남의 부모도 공경한다. ·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공경한다. ·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충 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꾸지람이 잘못 되었다더라도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해명하지 않는다.
승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원하시는 것을 존중한다. ·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 훌륭하고 값진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 · 부모의 뜻과 내 뜻이 다르더라도 부모의 뜻에 따르도록 노력한다.
입 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맡은 일을 충실히 하여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룬다. · 나의 일을 충실히 하여 사회와 국가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
추 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아가신 조상의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갖는다.
절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건을 아껴쓰고 저축하는 습관을 기른다. · 외제물품 사용을 자제한다. · 나의 욕망을 절제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
예 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조부모께 항상 공손한 태도를 취한다. · 인사를 잘한다. · 존대말을 사용한다. ·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을 잘 지킨다. ·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한다.
우주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쓰레기를 구분하여 버리고 물품을 재활용한다. · 공공시설물을 아낀다. · 조상의 문화적 유산을 귀하게 여긴다. · 자연사랑과 환경보존으로 후손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준다.